

초등학생의 공감, 친사회성 및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성차

권 지 웅¹⁾

박 종 효²⁾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또래지위를 통해 조절되는지, 더 나아가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성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클래스넷 4차년도 자료로서, 초등학교 41학교, 54학급, 총 1,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로 측정한 공감과 또래지명으로 측정한 친사회성, 또래지위(선호, 인기), 방어행동 변인을 사용하였다. 친사회성의 매개효과와 또래지위의 조절효과, 그리고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차이 등은 SPSS-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 방어행동의 성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은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확인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는 또래지위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는 공감과 친사회성이 높은 학생들이 또래지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보다 방어행동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또래지위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졌는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또래지위가 높을 때 공감이 친사회성을 거쳐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친사회성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차도 함께 고려한다면 또래괴롭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공감, 친사회성, 방어행동, 또래지위, 성차, 조절된 매개효과

1) 주저자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E-mail: jonghyop@konkuk.ac.kr)

I. 서론

2019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육부, 2019)에 의하면 학교 폭력의 전체 피해 응답률은 중등(0.8%)·고등(0.4%)에 비해서 초등(3.6%)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 발표에서 초등학교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언어폭력, 또래괴롭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응답률뿐만 아니라 가해 응답률의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점은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방관행동은 30.1%나 되었다. 방관행동이 1년 전보다는 0.1% 낮아지긴 했지만 2년 전보다는 9.8%나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전제로 추론해 보면 초등학교생들의 학교 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지하는 방어행동 보다는 방관행동이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방관행동과 방어행동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주변인(bystander)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돕는 것과 관련된 방어자 및 방어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오인수, 임영은, 김서정, 2019). 먼저, 본 연구에서 방어행동은 주변인 중 방어자가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방어행동의 ‘빈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유는 또래괴롭힘이 일어날 때 주변인들은 동일 역할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지미, 김정민, 2013). 또래괴롭힘 연구자들이 방

어행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방어행동이 일어날 때 괴롭힘이 즉시 멈추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Hawkins, Pepler, & Craig, 2001). 이런 연구는 방어행동이 또래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려준다(이인숙, 박재연, 2019). 또한 최근에는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 등이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권지웅, 박종호, 2020; 황수영, 윤미선, 2018).

방어행동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개인 수준의 보호요인은 공감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여 타인의 정서 상태에 반응하고 그것을 상상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서적이며 인지적 과정이다(하은혜, 조유진, 2007; Batson & Ahmad, 2009). 또는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능력이기도 하다(Hisio, 2017). 공감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방어행동을 많이 한다(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겪는 부정적 감정을 이해 또는 공유하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공감이 있으면 힘든 상황에 겪고 있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돕게 된다(Batanova, Espelage, & Roa, 2014). 대표적인 방어행동이 피해자를 돕는 행위이므로 공감은 방어행동과 관련이 많으며(이은영, 황혜원, 2019), Ma, Meter, Chen과 Lee(2019)의 메타연구에서도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잘하는 학생들이 방어행동을 쉽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감은 친사회성의 발달에 선행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남희, 남상인, 2020; Shaffer & Kipp, 2010). 따라서 공감은

타인을 돕는 친사회성에 기여한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7). 친사회성을 정의하자면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성향과 행동이다(Edwards et al., 2015). 친사회성에서 나오는 친사회적 행동은 공감, 도덕적 추론이나 관점채택 능력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전제로 하며, 자원을 기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이타적 행동,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봉사 또는 협력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Hoffman, 2001). 박금주(2008)는 또래괴롭힘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어자들의 사회적 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이런 사회적 능력은 공격성으로 나타날지 친사회성으로 나타날지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공감을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요인으로서 제안하였다.

Gini, Pozzoli, Borghi와 Franzoni(2008)는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연구에 의하면 방어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괴롭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부모 또는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렇듯 친사회성은 방어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이주영, 2014). 친사회성에서 나온 친사회적 행동도 공감과 마찬가지로 방어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인 변인 중 하나다. 아동의 친사회성은 또래괴롭힘에서 방어자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Zuffianò et al., 2016). 요약하면 공감은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고,

친사회성도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다. 또한 공감은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에, 공감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친사회성이 매개할 수 있다(이은영, 황혜원, 2019). 하지만, 이런 매개 효과만으로 방어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Bronfenbrenner(1979)의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실 안에서 미시체계의 하나인 또래 요인이 학생들의 친사회성과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감과 친사회성만으로 방어행동이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래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Olweus, 1993). 즉, 방어행동을 하려면 또래 사이에서 가해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거나, 적어도 비슷한 힘을 가져야만 한다. 또래괴롭힘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 행동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Caravita, Blasio, & Salmivalli, 2010). 따라서 이러한 가해행동에 맞서 방어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또래 내에서의 지위가 꼭 필요하다(Juvonen & Galvan, 2008). 청소년 시기는 일찍부터 또래들끼리의 집단이 형성되며, 형성된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위가 형성된다. 이런 또래지위는 집단 내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로서 또래들의 수용과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난 사회측정적 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Gillessen & Rose, 2005). 사회측정적 인기는 또래 선호도에 기반을 둔 인기이며, 또래에게 선호되지 않더라도 또래들에게 여전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기 있는 아동들이 발견된(Parkhurst & Hopmeyer, 1998) 이후

지각된 인기(Perceived Popularity)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Cillessen & Rose, 2005). 지각된 인기는 집단 내 사회적 영향력이나 우세한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Engels 등(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각된 인기와 사회성측정 인기를 각각 선호와 인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Schwartz, Gorman, Nakamoto와 McKay(2006)는 선호와 인기라는 두 가지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 ‘또래지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또래지위를 ‘인기’와 ‘선호’라는 측정변인으로 이루어진 잠재변인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선호와 인기를 또래지위라는 하나의 변수로 묶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차원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역동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Zhang 등(2018)은 또래관계의 연구에서 또래체계 내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위 즉, 선호와 인기의 개념이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선호와 인기는 발달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분화되기 이전이므로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본 연구는 학급 안에서 인기와 선호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위라는 상위 개념으로 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방어행동은 다른 학생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 있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도 또래지위는 방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안효영, 진영은, 2014; Caravita, Blasio, & Salmivalli, 2010).

지금까지 소개된 선행연구들을 모두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공감은 방어행동과 친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친사회성은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이다. 그리고 또래지위가 높으면 방어행동을 하기 쉽고, 친사회성이 또래 선호와 또래 인기에 정적인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친사회성과 또래지위도 역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Lease, Kennedy, & Axelrod, 2002). 하지만, 또래지위는 지금까지 방어행동이나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며(김승천, 이준원, 2016; 안소현, 이승연, 이솔, 안지현, 안제원, 2012),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또래지위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연구(권자용, 박종호, 2020)가 있지만 두 변인 간에 제 3의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방어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은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방어행동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빈도가 높고(Caravita, Gini, & Pozzoli, 2012; Lambe, Hudson, Craig, & Pepler, 2017),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Eisenberg & Lennon, 1983), 공감능력도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박수경, 양심영, 2017; Baron-Cohen & Benenson, 2003). 이런 선행 연구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변인인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 방어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사이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방어자역할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이은영, 황혜원, 2019), 방어

행동과 관련된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 성차의 변인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매개와 조절 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는 국내외에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과 관련 있는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후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조절된 매개 효과는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 I 은 공감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연구모형 II는 연구모형 I 에서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연구모형 III은 연구모형 II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성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감, 친사회성, 방어행동, 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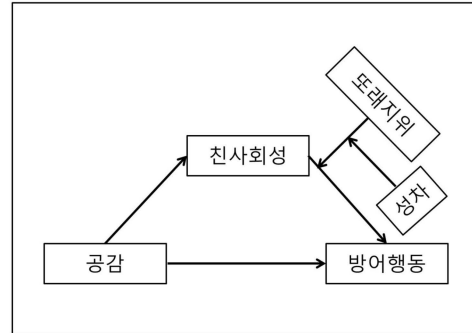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III

래지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3.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를 친사회성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4.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를 친사회성이 매개하는 과정에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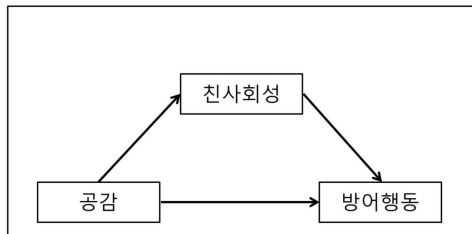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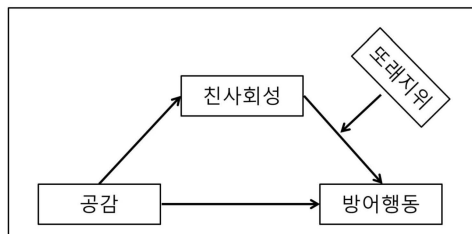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I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넷 프로그램을 통해 4차년도 1차시기에 조사한 2019학년도 1학기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1,208명(남: 608, 여: 600)의 데이터를 편의표집 하여 수집하였다. 전체 참여 학교 수는 41개이며, 총 54개 학급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로 나타내었다.

표 1. 분석대상

		학생 수	백분율(%)			학생 수	백분율(%)
성별	남	608	50.3		초4	225	18.6
	여	600	49.7				
지역	서울	507	41.9	학년	초5	193	16.0
	경기	427	35.3				
	*광역시	165	13.7	전체	초6	790	65.4
	경상, 전라, 충청	109	9.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클래스넷을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클래스넷은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급 내에 존재하는 또래관계의 역동을 확인하고 학급의 풍토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웹기반 검사 프로그램이다(박종효 등, 2017).

방어행동

방어행동은 Salmivalli 등(1996)에서 사용한 문항 중 박종효 등(2017)이 번안하여 만든 1문항을 사용하였다. 방어행동을 묻는 문항은 ‘이 아이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준다.’이다. 측정은 또래지명 방식으로 하였는데,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문항에 해당되는 모든 또래들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또래지명 방식은 학급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1문항만 측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과 신뢰에 관련된 변인들의 통계학적 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Babcock, Marks, Crick, & Cillessen, 2014). 문

항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모든 학생이 받은 지명 수를 참여자수에서 지명자 본인을 뺀 값으로 나눈 후 얻게 된 비율점수를 이용하였다. 비율점수의 범위는 0~1이며 측정도구가 1문항이므로 신뢰도는 산출하지 않았다.

공감

공감은 현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과 손경원(2014)의 연구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나는 친구가 화가 나았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를 비롯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83이다. 자기 보고로 측정하였고, 점수는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상위일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성

친사회성은 Logis, Rodkin, Gest와 Ahn(2013)의 연구 문항 중에서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아이는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를 비롯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지명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문항 점수는

모든 학생이 받은 지명 수를 참여자수에서 지명자 본인을 뺀 값으로 나눈 후 얻게 된 비율 점수를 이용하였다. 비율점수의 범위는 0~1이며 측정도구가 2문항이므로 신뢰도는 산출하지 않았다.

또래지위

또래지위는 Garandau, Ahn, Rodkin(2011)의 문항을 박종효 등(2017)이 번안, 수정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이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아이이다.’이며, 인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이 아이는 인기가 많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기와 선호를 측정변인으로 한 잠재변인의 역할을 하는 또래지위라는 변인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들이 각각 1문항이므로 신뢰도는 산출하지 않았다. 역시 또래지명 방식으로 측정하여 방어행동과 친사회성과 같은 계산법을 활용한 비율 점수를 이용하였다.

성별

성별은 클래스넷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입력할 때 성별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이름과 함께 해당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를 확인하여 선택하면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남학생 608명을 0, 여학생 600명을 1로 더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클래스넷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의 1차 시기에 횡단적 자료 수집을 이용하여 연구 주

제에 관련된 변인들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에서인 중 결측치가 없는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SPSS 21,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1로 방어행동,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의 기술통계와 전체 및 성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첨도, 왜도 값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다변량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의 절대값이 첨도는 10, 왜도는 3 미만인 경우를 기준하였다(Kline, 2015).

둘째, SPSS 21로 방어행동,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의 성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Hayes(2018)의 PROCESS를 이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매개와 조절 또는 그 둘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 모델(조절된 매개, 매개된 조절)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먼저 PROCESS 3.5 MODEL 4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붓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연구모형 I인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기 이전에 PROCESS macro 3.5 model 1을 이용하여 친사회성과 또래지위의 조절 효과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각각 확인이 되면 이후 PROCESS macro 3.5 model 14를 사용하여 연구모형 II인 공감이 친사회성을 경유하여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또래지위가 조절하는지에 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2.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 (N = 1,208, 남 = 608[0], 여 = 600[1])

	1	2	3	4
1. 방어행동	1	.47***	.57***	.38***
2. 공감	.15*** (.12**)	1	.24***	.14**
3. 친사회성	.58*** (.59***)	.26*** (.24***)	1	.47***
4. 또래지위	.42*** (.47***)	.16*** (.19***)	.51*** (.59***)	1
평균	.10	12.20	.41	.04
표준 편차	.09	2.35	.26	.06
왜도	1.69	-.49	.98	2.69
첨도	3.65	-.17	1.33	9.34

** $p < .01$. *** $p < .001$. 대각선 하단: (남학생), 대각선 상단: 여학생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3.5 model 18을 활용하여 연구모형Ⅲ인 조절된 매개모형이 성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비롯한 변인 간 상관 및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변인끼리의 상관관계는 표 2와 동일하다. 기술통계에서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첨도 및 왜도 값을 사용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전체 변인들의 첨도 절대값은 .17~9.34, 왜도 절대값이 .49~2.69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위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5).

전체적으로 방어행동은 공감($r = .15, p < .001$), 친사회성($r = .58, p < .001$), 또래지위($r = .42, p < .001$)와 의미 있는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공감은 친사회성($r = .26, p < .001$), 또래지위($r = .16, p < .0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친사회성은 또래지위($r = .51, p < .001$)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방어행동과 공감의 상관은 남학생($r = .12, p < .001$) 보다 여학생($r = .47, p < .001$)이 높았으며, 방어행동과 친사회성은 남학생($r = .59, p < .001$)이 여학생($r = .57, p < .001$) 보다 높았다. 방어행동과 또래지위는 남학생($r = .47, p < .001$)이 여학생($r = .38, p < .001$)보다 높았다. 공감과 친사회성은 남학생($r = .24, p < .001$)과 여학생($r = .24, p < .001$)이 같았으며, 공감과 또래지위는 남학생($r = .19, p < .001$)이 여학생($r = .14, p < .001$)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성과 또래지위는 남학생($r = .59, p < .001$)이 여학생($r = .47, p < .001$)보다 높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방어행동과 공감, 친사회성, 또래지위의 평균 차 검정을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방어행동은 남학생($M = .09, SD = .09$)에

표 3. 성차에 따른 변인 간 평균 차이 검정(남학생=0, 여학생=1)

	남($n=608$)		여($n=600$)		검정통계량	집단 간 비교
	M	SD	M	SD	t	
방어행동	.09	.09	.11	.09	-2.224*	남<여
공감	11.89	2.51	12.51	2.12	-4.690***	남<여
친사회성	.36	.24	.47	.26	-7.541***	남<여
또래지위 전체	.05	.07	.03	.06	2.323*	남>여

* $p < .05$, ** $p < .01$ *** $p < .001$

비해 여학생($M = .11$, $SD = .09$)의 방어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았으며($t = -2.224$, $p < .05$), 공감은 남학생($M = 11.89$, $SD = 2.51$)이 여학생($M = 12.51$, $SD = 2.12$)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t = -4.690$, $p > .001$). 친사회성은 남학생($M = .36$, $SD = .24$)이 여학생($M = .47$, $SD = .26$)보다 더 유의하게 낮았다($t = -7.541$, $p < .001$). 또래지위 전체는 남학생($M = .05$, $SD = .07$)이 여학생($M = .03$, $SD = .06$)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았다($t = -2.323$, $p < .05$). 하지만 또래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기는 남학생

($M = .15$, $SD = .18$)이 여학생($M = .12$, $SD = .14$)보다 높았으며($t = 3.263$, $p < .01$), 선호는 남학생($M = .24$, $SD = .12$)이 여학생($M = .26$, $SD = .13$)보다 낮았다($t = -3.273$, $p < .01$).

공감과 방어행동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고, 신뢰구간은 95%, 붓스트래핑 샘플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4와 같다. 공감은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표 4.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N=1,208)

변수	β	se	t 값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친사회성)						
상수	.062	.038	1.613	.107	-.013	.137
공감	.029	.003	9.320***	.000	.023	.035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방어행동)						
상수	.016	.012	1.408	.159	-.006	.039
공감	-.0002	.001	-.243	.808	-.002	.002
친사회성	.210	.009	24.097***	.000	.193	.228

*** $p < .001$

LLCI* =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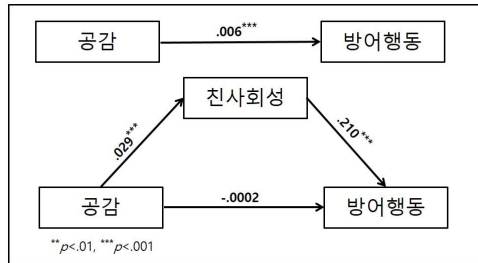


그림 4. 매개모형

치고($\beta = .0618, p < .001$), 친사회성은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beta = .2104, p < .001$), 친사회성이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표 5를 보면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총효과($\beta = .006, p < .001$)는 매개변수인 친사회성이 투입되면서 경로의 직접효과($\bet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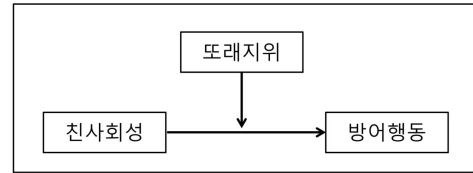


그림 5. 조절모형

$-.0002, p > .5$)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어 친사회성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친사회성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친사회성 변인과 방어행동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였다. 조절모형 검정 결과 및 모형은 표 6과 같다. 친사

표 5.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β	se	LLCI	ULCI
총효과	.006	.001	.004	.008
직접효과	.000	.001	-.002	.002
간접효과	.006	.001	.005	.008

표 6. 조절 효과 검증

변수	β	se	t 값	p	LLCI	ULCI
조절변수 모형(종속변수 : 방어행동)						
상수	.097	.002	42.747***	.000	.093	.102
친사회성	.177	.010	18.425***	.000	.158	.196
또래지위	.148	.046	3.224**	.001	.058	.237
친사회성×또래지위	.334	.090	3.706***	.000	.157	.511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007		13.733	.000	

** $p < .01$, *** $p < .001$

표 7.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수	β	se	t 값	p
매개변수 모형(중속변수 : 친사회성)				
상수	-.350	.038	-9.151***	.000
공감 → 친사회성	.029	.003	9.320***	.000
조절변수 모형(중속변수 : 방어행동)				
상수	.099	.012	8.308***	.898
공감 → 방어행동	.000	.001	-.1280	.898
친사회성 → 방어행동	.177	.010	18.007***	.000
또래지위 → 방어행동	.148	.046	3.223***	.001
친사회성 × 또래지위 → 방어행동	.333	.091	3.67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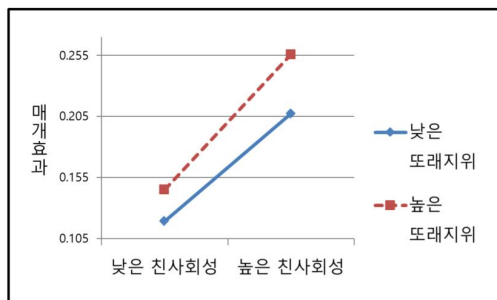
*** $p < .001$ 

그림 6. 조절그래프 I

회성은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097, p < .001$), 조절변인인 또래지위도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148, p < .001$). 친사회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조절항은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beta = .334, p < .001$).

또한 상호조절항의 추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R^2 의 증가분은 .007($p < .001$)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모형 II와 같이 공감과 방어행동의 사이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또래지위가 조절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Hayes(2018)의 model 1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붓스트래핑 샘플수와 신뢰구간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7, 그림 6과 같다.

분석결과 공감은 친사회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029, p < .001$), 친사회성은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beta = .177, p < .001$),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은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beta = .000, p > .05$), 공감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친사회성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친사회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작용항은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 = .333, p < .001$),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8. 성별의 조절효과

변수	β	se	t 값	p
매개변수 모형(중속변수 : 친사회성)				
상수	-.350	.038	-9.151***	.000
공감 → 친사회성	.029	.003	9.320***	.000
조절변수 모형(중속변수 : 방어행동)				
상수	.101	.012	8.355***	.000
공감 → 방어행동	.000	.001	.056	.955
친사회성 → 방어행동	.177	.015	11.498***	.000
또래지위 → 방어행동	.172	.058	2.955**	.003
친사회성 × 또래지위 → 방어행동	.226	.104	2.182*	.029
성차	-.010	.005	-1.973*	.049
친사회성 × 성차 → 방어행동	.010	.020	.480	.631
또래지위 × 성차 → 방어행동	-.143	.100	-1.426	.154
친사회성 × 또래지위 × 성차 → 방어행동	.493	.218	2.258*	.024

* $p < .05$, ** $p < .01$, *** $p < .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값은 그림 6과 같다. 상호작용의 패턴을 알기 위하여 조절변수인 또래

지위와 친사회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1표준편차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또래지위가 높은 집단 학생은 친사회성이 높아질수록 낮은 또래지위를 가진 집단 학생보다 방어행동의 경향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Ⅲ인 그림 3과 같이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Hayes(2018)의 model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بوت스트래핑 샘플수와 신뢰구간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연구모형Ⅲ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beta = .493, p < .05$). 표 8에 제시한 것처럼 연구모형에 대한 성별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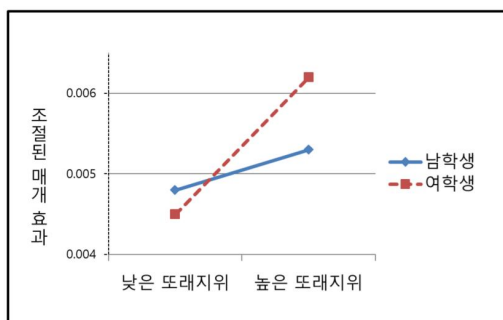


그림 7. 조절그래프Ⅱ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그림 7로 시각화하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알기 위하여 조절변수인 또래지위의 평균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낮은 집단과 1표준편차 높은 집단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또래지위가 높을수록 조절된 매개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또래지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집단에서 크지만 높은 또래지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다는 의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공감과 방어행동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더 나아가 친사회성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가 또래지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된 후, 연구자는 성별에 따라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감과 친사회성, 방어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왔다. 반면에 또래지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공감능력과 친사회성, 방어자 역할 수준이 높게 나왔던 이은영과 황혜원(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국외 연구에서도 방어행

동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Caravita et al., 2012; Lambe et al., 2017). 이런 결과를 설명하자면 여학생들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또래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화된다는(Salmivalli et al., 1996). 여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이 높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한 행동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cker & Eagly, 2004). 여학생들은 타 집단 구성원들일지라도 타인을 돕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낮은 지위를 가진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방어자들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Becker & Eagley, 2004),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성역할에 맞춰 방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Ma et al., 2019).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완전 매개를 하였다. 동일 변인으로 연구한 이은영과 황혜원(2019)의 결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준하여 해석해보면 방어행동은 공감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즉, 방어행동이 일어나려면 타인에 대한 공감 이후 반드시 친사회성을 거쳐야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어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행동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House et al., 2013). 특히 방어행동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공감만으로 방어행동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피해를 보호하는 행동이 또래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개개인은 방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줄어들 것이다

(Pozzoli, Gini, & Vieno, 2012; Salmivalli & Voeten, 2004). 친사회성은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다 (Baston, 1991; Edwards et al., 2015). 친사회성에서 나오는 친사회적 행동은 공감을 전제로 하며, 이타적 행동,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협력하는 행동을 포함한다(Hoffman, 2001). 선행연구에 의하면 방어자들은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방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들이 부모 또는 교사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피해 학생들을 위로해주거나, 가해자를 제재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황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런 친사회성에 기반한 행동들은 대표적인 방어 행동이다(Salmivalli et al., 1996). 이렇듯 친사회성은 방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주영, 2014). 따라서 공감이 잘 발달된 학생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수반할 경우, 방어행동으로 연결되어 방어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완전 매개를 할 때 친사회성과 방어행동의 경로에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또래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하므로(Olweus, 1993), 방어행동을 하려면 또래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가해행동에 맞서 방어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또래 내에서의 지위가 꼭 필요하다(Juvonen & Galvan, 2008). 또래 사이에서 지위는 또래들의 수용과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여 나타난 선호(Cillessen & Rose, 2005)와 인기(Cillessen & Rose, 2005)가 지위를 결정한다.

즉, 친사회성에서 방어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기나 선호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친사회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래지위가 높으면 방어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학급 내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방어행동을 할 수 있으며 (Caravita et al., 2010), 또래지위는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안효영, 진영은, 2014) 결과와 본 연구는 맥을 같이 한다.

넷째,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 모형에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래지위는 친사회성이 방어행동에 미치는 수준을 조절하는 변수다. 즉, 친사회성이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래지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또래지위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학생은 성역할 정체감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남학생 보다 친사회적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사회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박수경, 양심영, 2017). 따라서 친사회성에서의 성차가 또래지위의 영향력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는 방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공감과 친사회성은 특별한 위험 감수 행동을 해야 하는 즉, 가해자에게 직면하는 직접적 방어행동과는 다른 친사회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어행동 형태이기 때문이다(Hawkins et al., 2001). 따라서 여학생들은 가해자와 맞서기 보다는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을 통해 자신의 방어자 역할을 더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가해자에게 직면하고 맞서는 방어행

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변인을 사용했다면, 남학생에게서 또래지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Ma et al., 2019).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클래스넷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 그 아래 시군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로 자료를 편의 표집 하였다. 따라서 특정 도시나 학교 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지역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 차로 인한 편향을 극복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감과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완전 매개를 하였다는 연구결과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감만 가지고는 방어행동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친사회성이 반드시 매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인성 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면 친사회성을 활성화시켜 공감을 방어행동까지 연결시켜 또래괴롭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정지선과 이숙향(2020)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성교육 이후에 친사회성 점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 또래지위는 공감이 높은 학생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이것이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또래지위가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방어행동으로 쉽게 연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담임교사들은 온라인 기반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인 클래스넷(박종효 등, 2017)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기가

시작될 때 자신의 학급 내에 또래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친사회성과 또래지위, 방어행동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또래괴롭힘에 반대하는 학급의 규범과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또래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학급의 집단효능감을 ‘괴롭힘대처집단효능감’이라고 하는데 괴롭힘대처집단효능감이 높은 학급은 낮은 학급보다 방어행동이 더 쉽게 일어나 또래괴롭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권지웅, 박종효, 2020).

넷째, 공감, 친사회성, 방어행동, 또래지위로 구성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서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더 컸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급의 비율상 여학생이 많거나 초등학교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여자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내포한다. 또래지위가 높은 여학생이 공감과 친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을 받았을 때 방어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며, 특히 또래로부터 선호와 인기가 많은 여학생일수록 학급 내 괴롭힘대처집단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또래상담반을 운영할 때 이런 학생들이 위주가 되어 또래괴롭힘을 예방하는 학급 또는 학교 분위기를 만든다면 괴롭힘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감을 키우는 인성교육에서 정서적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중학생 시기까지 친사회적 도덕추론능력의 발달이 더디게

나타났다고 한다(정명숙, 2002). 정서적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성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하여서 후속 연구를 할 계획이다. 첫 번째, 방법론에 관한 부분이다. 전통적 통계법인 회귀분석법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차에 관련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과 같은 통계법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정밀한 매개와 조절효과를 검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연구 대상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추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넓혀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절변인을 학교급으로 했을 때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또래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측정 도구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문항수가 적어 신뢰도를 산출하거나, 정밀하게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이 보완 가능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방어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공감과 친사회성 및 또래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서 친사회성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

께 성차의 요소도 충분히 고려한다면 또래괴롭힘 예방에 더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도 함께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8).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55-272.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서울: 교육부.
- 권남희, 남상인 (2020). 청소년의 부모관련변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친사회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1), 65-99.
- 권지웅, 박종효 (2020). 초·고등학생의 또래지위가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층수준모형을 이용한 학교급 및 학급 수준의 괴롭힘대처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4(2), 347-368.
- 권지웅, 박종효 (2020). 초·중등학생의 친사회성, 교사학생지지와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8(2), 115-134.
- 김승천, 이준원 (2016).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내 지위가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방어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7(1), 22-40.
- 김지미, 김정민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3-29.

- 박수경, 양심영 (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142-152.
- 박종효, 문경숙, 안혜정, 최지영, 홍경화, 김진구, 최은영 (2017). 사회연결망분석에 기초한 웹 기반 클래스넷(ClassNet)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8(3), 107-137.
- 안소현, 이승연, 이 솔, 안지현, 안제원 (2012). 중학생의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에,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225-246.
- 안효영, 진영은 (2014).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연구동향 및 과제. *열린교육연구*, 22(4), 95-117.
-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70-282.
- 오인수, 임영은, 김서정 (2019).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괴롭힘 주변인의 방어 및 동조 행동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4), 943-960.
- 이은영, 황혜원 (2019).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204-248.
- 이인숙, 박재연 (2019). 학교폭력 주변인 중 방어자의 특성에 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219-222.
- 이주영 (2014).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지각된 위협 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친사회적 정서와 도움 의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명숙 (2002).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15(4), 113-127.
- 정지선, 이숙향 (2020). 포스터 제작 협동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의 인성역량, 장애학생 수용태도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20, 51-80.
- 하은혜, 조유진 (2007). 또래동조성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 내적 중재요인: 남. 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4(4), 49-64.
- 현 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 손경원 (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수영, 윤미선 (201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33(2), 193-210.
- Babcock, B., Marks, P. E., Crick, N. R., & Cillessen, A. H. (2014). Limited nomination reliability using single and multiple item measures. *Social Development*, 23(3), 518-536.
- Baron-Cohen, S., & Benenson, J. F. (2003). Books and arts-essential difference: Men, women and the extreme male brain/essential difference: The truth about the male and female brain. *Nature*, 424(6945), 132-132.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 Ahmad, N. Y.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1),

- 141-177.
- Batanova, M., Espelage, D. L., & Rao, M. A. (2014). Early adolescents' willingness to intervene: What roles do attributions, affect, coping, and self-reported victimization pla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3), 279-293.
- Becker, S. W., & Eagly, A. H. (2004). The heroism of women and men. *American Psychologist, 59*(3), 163-17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li, C. (2010). Distinct Correlates of Perceived Popularity and Social Preference: Evidence From Finland and Italy. Paper presented in *SRA 2010 Biennial Meeting*(pp.11-13). Philadelphia (March 2010):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 Caravita, S. C. S., Gini, G., & Pozzoli, T. (2012). Main and moderated effects of moral cognition and status on bullying and defending. *Aggressive Behavior, 38*(6), 456-468.
- Cillessen, A. H., & Rose, A. J. (2005). Understanding popularity in the peer syst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102-105.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 analysis of school 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dwards, A., Eisenberg, N., Spinrad, T. L., Reiser, M., Eggum Wilkens, N. D., & Liew, J. (2015). Predicting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from young children's dispositional sadness. *Social Development, 24*(1), 76-94.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1), 100-131.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7).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 Lerner, R.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Hoboken, NJ: Wiley. 6, pp.646-718.
- Engels, M. C., Colpin, H., Van Leeuwen, K., Bijttebier, P., Van Den Noortgate, W., Claes, S., ... & Verschueren, K. (2016). Behavioral engagement, peer statu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n reciprocal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6), 1192-1207.
- Garandeau, C. F., Ahn, H. J., & Rodkin, P. C. (2011). The social status of aggressive students across contexts: The role of classroom status hierarchy, academic achievement, and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699-1710.
-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17-638.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1), 1-15.

- 10(4), 512-527.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isao, O. (2017). *Psychology for Nurses*. DaeKwang Medical.
- Hoffman, M. L. (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se, B. R., Silk, J. B., Henrich, J., Barrett, H. C., Scelza, B. A., Boyette, A. H., . . . Laurence, S. (2013). Ontogeny of prosocial behavior across diverse socie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0(36), 14586-14591.
- Juvonen, J., & Galván, A. (2008). Peer influence in involuntary social groups: Lessons from research on bullying. In M. J. Prinstein & K. A. Dodge (Eds.), *Duke series in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Understanding peer influ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 225-244).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mbe, L. J., Hudson, C. C., Craig, W. M., & Pepler, D. J. (2017). Does defending come with a cost? Examining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defending behaviour among bystanders of bullying in a Canadian sample. *Child Abuse & Neglect*, 65, 112-123.
- Lease, A. M., Kennedy, C. A., & Axelrod, J. L. (2002). Children's social constructions of popularity. *Social Development*, 11(1), 87-109.
- Logis, H. A., Rodkin, P. C., Gest, S. D., & Ahn, H. J. (2013). Popularity as an organizing factor of preadolescent friendship networks: Beyond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3), 413-423.
- Ma, T. L., Meter, D. J., Chen, W. T., & Lee, Y. (2019). Defending behavior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and cyber contex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individual and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Bulletin*, 145(9), 891-928.
- Nickerson, A. B., Mele, D., & Princiotta, D. (2008). Attachment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oles as defenders or outsiders in bullying interac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87-703.
- Olweus, D. (1993). Bullies on the playground: The role of victimization. In C. H. Hart (Ed.), *SUNY series, children's play in society. Children on playgrounds: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 85-128).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er-perceived popularity: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2), 125-144.
- Pozzoli, T., Gini, G., & Vieno, A. (2012). The role of individual correlates and class norms

- in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A multileve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3(6), 1917-1931.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2(1), 1-15.
- Schwartz, D., Gorman, A. H., Nakamoto, J., & McKay, T. (2006). Popularity,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 peer groups: Links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tten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116-1127.
- Shaffer, D. D. R., & Kipp, K.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Childhood and adolescence*. Cengage Learning.
- Zhang, X., Pomerantz, E. M., Qin, L., Logis, H., Ryan, A. M., & Wang, M. (2018). Characteristics of likability, perceived popularity, and admiration in the early adolescent pee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evelopmental Psychology*, 54(8), 1568-1581.
- Zuffianò, A., Eisenberg, N., Alessandri, G., Luengo Kanacri, B. P., Pastorelli, C., Milioni, M., & Caprara, G. V. (2016). The relation of pro-sociality to self esteem: The mediational role of quality of friendships. *Journal of Personality*, 84(1), 59-70.

1 차원고접수 : 2020. 07. 04.

수정원고접수 : 2020. 09. 17.

최종게재결정 : 2020. 09. 20.

Gender Difference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Status on the Relationships among empathy, Pro-social traits and Defend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won Ji-Woong

Park Jong-Hyo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tra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defending behavior; and to examine if this mediating effect is moderated through peer status; and whether it varies depending on gender. The fourth wave of Class-Net data was used to target a total of 1,208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was measured by self-reports, and pro-social traits, peer status (preference, popularity) and defending behavior were measured by peer nomin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ro-social trai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status, and the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by gender were analyzed using SPSS-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pro-social traits, peer status and defending behavior. Second, pro-social trait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defending behavior.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tra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defending behavior was regulated by peer status. This means that students with high levels of empathy and pro-social traits show higher rates of defensive behavior than those with lower levels of empathy and pro-social traits. Fourth, there was a gender gap in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status. For female students, a higher peer status had a greater impact on empathy, leading to pro-social traits and defend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will be helpful when implementing character-building education to enhance pro-social traits so as to prevent peer bullying at schools.

Keywords: empathy, pro-social trait, defending behavior, peer status, gender difference, moderated mediating effect